A decorative backgroun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a repeating pattern of green parallelograms and triangles of varying shades, creating a textured, woven effect.

버려진 그림책의 두 번째 이야기

책과 친밀한 선생님들의
「업사이클링 팝업북 활용 연수」 에세이

버려진 그림책의 두 번째 이야기

책과 친밀한 선생님들의
「업사이클링 팝업북 활용 연수」 에세이

버려진 그림책의 두 번째 이야기

발행일 | 2024년 11월 20일

글·사진 | 최희정 · 정은혜 · 이영화 · 이경남 · 문현정
김정은 · 김연주 · 권효진 · 고희경 · 강예림

지 도 | 안선화(정크아티스트, 작가)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정보자료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전 화 : 032-450-9100

누리집 : <https://lib.ice.go.kr/juan>

디자인 · 제작 | 공간디앤피

ISBN | 979-11-988414-5-2 (13810) 비매품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의 2024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활용 연수」 참여 선생님들과 함께 읽견쓰 활동으로 제작된 에세이입니다.

* 이 책의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글 · 사진

최희정 · 정은혜 · 이영화 · 이경남 · 문현정
김정은 · 김연주 · 권효진 · 고희경 · 강예림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그림책으로 담아낸 나만의 이야기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듭니다.”

저는 그림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팝업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책도 팝업북도 좋아합니다.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드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의 팝업북은 그림책을 보며 느낀 감정을 리뷰하듯, 팝업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특별한 기교를 넣기보다는 간단한 종이접기를 통해 그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그림책이 저의 팝업북에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저는 버려진 것을 바라보고, 그 재료에서 떠오르는 그림책의 연관성을 찾아 정크 작업을 하는 정크 아티스트입니다. 버려진 시계를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가 떠오르기도 하고,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의 막내가 숨어 있던 패종시계가 떠오릅니다.

그림책 팝업북을 한 권, 두 권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십여 년 동안 혼자 해 오던 작업을, 2015년부터는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 방법을 배워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만들던 팝업북 작업은 설명하고 안내하는

작업으로 변했습니다. 또 십여 년이 지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그림책들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 그림책 종이가 코팅되어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과 종이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작업은 환경을 인식하고, 예술로 표현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수록, 버려지는 그림책들이 다시 ‘보는 책’으로 돌아오고, 사라져가는 나무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주안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획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작업물인 팝업북을 만들고 함께 펼쳐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권 한 권 새롭게 완성된 팝업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고, 함께하니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고, 환한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저도 한 페이지의 즐거운 기록을 남깁니다.

『버려진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듭니다』 저자
안선화 작가

버려진 그림책의 두 번째 이야기



|차례|

—연수 소감 다섯 글자—

1. 어찌다예술 / 최희정 ... 8
2. 네잎클로버 / 이영화 ... 34
3. 일신우일신 / 문현정 ... 62
4. 팝업상담소 / 김정은 ... 80
5. 다소중해요 / 이경남 ... 98
6. 그냥은없다 / 강예림 ... 110
7. 보람한가득 / 권효진 ... 122
8. 환경지킴이 / 김연주 ... 142
9. 책에숨결을 / 고희경 ... 156
10. 그림에집중 / 정은혜 ... 174



1

어쩌다 예술

/ 최희정(인천가좌초등학교)

“재능이 없는 내가
별 기대감 없이 만들었는데,
전시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팝업북 활용 연수

– 액자 그림과 기본 익히기(2024년 5월 16일)

오늘은 팝업북 활용 연수의 첫날이었다. 아침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왜냐하면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만들거나 그리기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10회의 장기 연수를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채, 주안도서관으로 향했다. 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주안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만났다. 안선화 선생님은 친근한 인상과 나긋한 말투로 나의 긴장을 풀어 주셨다. 선생님은 팝업북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연수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세심하게 준비해 오신 배려가 돋보였다. 버려진 그림책을 활용한 겉면과 속지, 풀, 가위, 물티슈, 본 폴더 등 필요한 도구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활동은 액자에 예쁜 그림을 오려 붙이는 것이었다. 작은 액자와 집게를 하나씩 나누어 받은 후,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액자 안에 넣거나 테두리를 꾸미는 작업을 했다. 액자 안팎을 그림으로 장식하니, 평범한 액자가 멋진 그림 액자로 변신했다. 그림을 오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내 손이 의외로 섬세하게 움직였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도 컸다. 이 활동을 통해 작은 그림 액자가 어떻게 특별한 작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 활동은 팜플렛을 활용한 팝업북 제작 기법 배우기였다. 우리는 버려진 전시 팜플렛을 재활용하여 팝업북의 기본 기법을 익혔다. 원래는 쓸모없어진 종이였지만, 우리에게겐 창의적인 알림북으로 재탄생했다. 무대 접기, 직사각형 접기, 스프링 접기 등 다양한 팝업북 기법을 배우며, 각각의 기법이 팝업북 구성 요소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했다. 팜플렛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창의적인 도구로 변모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이 날의 활동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었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리고 접고 붙이는 과정은 마치 놀이처럼 즐거웠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더욱 재미를 더해 주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해준 빵과 차는 연수 중

간의 피로를 덜어 주며 동료들과 소소한 대화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었다.

연수 첫날은 단순히 팝업북 기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마음의 여유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 종이로 신나게 놀며 자신감과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연수가 더욱 기대된다. 다음 수업에서 어떤 새로운 기법과 재미있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팝플렛과 그림 액자(앞면)



팝플렛과 그림 액자(앞면)

— 핑크 나라 무대책(2024년 5월 23일)

연수 둘째 날, 첫 번째 시간에 이어 접기와 꾸미기에 대한 추가 학습이 진행되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양한 종이 접기 기술과 창의적인 스프링 접기 기법을 활용해 방을 꾸미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종이 작업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예술적인 표현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우선, 정사각형 접기부터 시작했다. 정사각형 접기는 종이의 모양을 변형해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종이의 모서리와 중심을 이해하고, 다양한 모양을 접어보며 손의 감각과 공간 인식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기술이 이후 더 복잡한 작업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다음으로 스프링 접기를 배웠다. 스프링 접기는 종이를 길게 자르고 이를 연결해 스프링처럼 뽑아 내는 기법이다. 이 기술은 종이를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구조물이나 장식물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우리는 이 기법을 활용해 방 안을 꾸미고, 다양한 장식 요소를 만들어 보았다.

그런데 짝꿍이 커다란 그림을 오려 방 안에 어떻게 붙일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강사님께서 옆으로 오

서서 멋지게 붙여 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따라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보여 준 기술적인 부분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도 그 기술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각자 원하는 그림책을 선택해 무대책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었다. 선생님은 먼저 그림책을 한 권 고르라고 하셨고, 나는 그 중 표지가 예쁜 『핑크』라는 책을 선택했다. 책의 표지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그 자체로 독특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해 작업하기로 했다.

책의 겉표지 안쪽에 ㄷ(디귤) 자 모양을 붙이는 작업이 특히 재미있었다. 종이 한 장을 접고 자르고 풀칠해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ㄷ자 모양이 책의 표지 안쪽에 잘 붙었을 때, 근사한 작품이 될 것 같은 예감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나만의 스타일로 책의 표지를 꾸미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선생님은 좋아하는 캐릭터를 4~5장 오려서 무대나 표지에 자유롭게 붙이라고 하셨다. 이번 작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정사각형 접기와 스프링 접기를 활용해 꾸미는 것이었다. 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오려서, 그 캐릭터들이 책의 표지와 무대에 어울

리도록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내가 선택한 캐릭터는 아기를 안고 달래는 엄마였다.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아기가 예쁘게 자라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리본을 달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장면을 상상하며 꾸몄다. 이 장면을 꾸미며 나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그 결과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나는 다양한 종이 작업 기법을 배우고, 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스프링 접기와 정사각형 접기의 조합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핑크 나라 무대책

앞으로도 이러한 재미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계속되길 바라며, 이번 수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에 도전해 보고 싶다.

- 늘었어요, 늘었어(2024년 5월 30일)

『스토리 작업의 기본, 방책 만들기』 이 과정은 그림 책 제작에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책의 구조와 디자인을 형성하는 핵심 단계다. 수업의 첫 부분부터 끝까지 세심한 작업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방책이란, 책의 표지와 면지, 그리고 내부 페이지를 정리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순히 종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전반적인 비주얼과 스토리 구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작업이다.

우선, 우리는 각각의 책 페이지를 한 장씩 떼어 내고, 그 페이지의 배경이 될 면지를 선택했다. 면지는 책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면지를 꼼꼼하게 풀칠하여 두 장을 만들었다. 이는 책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성 들여 작업했다. 각자의 면지를 준비한 후, 이 두 면지를 책의 면지와 표지에 맞춰 붙였다. 이 작업은 특히 중요한데, 면지와 표지의 조화가 책의 전체 디자인과 스토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되는지 배우고,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는 『바닥 그림 만들기』로 책 바닥에 붙일 그림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 작업은 수

업 중간에 진행되었고, 바닥에 붙일 그림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꾸미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삼각 접기, 자르기, 접기, 그리고 풀칠 자리 만들기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삼각 접기』는 종이를 접어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과정으로, 종이의 입체감을 살리고 독특한 효과를 주는 데 사용된다. 이 기법을 통해 바닥에 붙일 그림에 다양한 패턴을 추가할 수 있었다. 자르기와 접기는 그림의 형태와 크기를 조정하는 데 필요했고, 이를 통해 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맞추는 작업을 했다.

『풀칠 자리 만들기』는 그림을 바닥에 잘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무리 단계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각 단계를 세심하게 진행한 결과, 바닥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이 작업은 책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비주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오늘 수업은 시간이 부족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히, 바닥 그림과 다른 장식 작업은 과제로 남았다. 수업 중에는 기본적인 작업과 주요 단



2쪽 방 꾸미기(바닥 완성)

계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과제는 수업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각자 집에서 남은 작업을 완료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수업의 이론을 실제 작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학습 단계였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방책 만들기의 기초 작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종이 작업 기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면지와 표지의 디자인, 바닥 그림 꾸미기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책 제작의 기본 과정과 디자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 일부 작업이 과제로 남았지만, 이를 통해 집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완성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기대된다. 오늘 배운 기법들과 디자인 원칙들이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2쪽 방 꾸미기(완성 작품)

– 힘이 되는 한마디(2024년 6월 20일)

오늘은 나폴레옹, 토머스 제퍼슨, 정주영 등 유명 인사들의 명언으로 1쪽 방을 꾸몄다.

버려진 그림책의 내용을 오려 붙이니, 책을 펼칠 때마다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1쪽 방 꾸미기

– 장난꾸러기 원숭이(2024년 7월 4일)

‘왕이 되고 싶은 호랑이’라는 같은 그림책을 활용해 팝업북을 만들었지만, 모두 각기 다른 팝업북이 완성되었다. 10명의 팝업북을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다. 버려진 그림책 ‘왕이 되고 싶은 호랑이’로 내가 만든 이야기의 제목은 ‘장난꾸러기 원숭이’이다



#1

이곳은 아기자기한 숲속 마을.
동물 친구들이 한가롭게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고 있어요.



#4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날이 갈수록 동물 친구들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2

앗! 무슨 일일까요?
동물 친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5

썩썩!!
원숭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큰소리로 장난을 칩니다.
노루와 멧돼지는 깜짝 놀라
후다닥 도망갑니다.



#3

숲속 친구들은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원숭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6

슈~욱, 슈~욱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멧돼지와 여우가
슬그머니 숨어 버립니다.



#7

“못생긴 사자야,
갈기가 왜 그렇게 생겼니?”
“깹깹깹!”
원숭이는 숲속의 대장인
사자에게도 겁 없이 놀리며
덤뽕니다.



#10

1주일이 지나고,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숭이는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동물 친구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동물 친구들의 표정도
다시 밝아졌고, 숲속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8

“도저히 못 참겠어! 말썽꾸러기
원숭이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거야?”
동물 친구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원숭이를 혼내 줄
방법으로, 원숭이가 나타나도
마치 '투명 원숭이'인 것처럼
무시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

사자는 멧돼지와 악어와 함께
회의 결과를 원숭이에게
전하러 갑니다.



– 딸꾹! 아코디언 책 (2024년 7월 11일)

아코디언 책은 좋아하는 그림 5장을 선택하고, 각 그림을 한 장씩 펼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팝업북이다.

〈아코디언 책 만들기 순서〉

그림 선택하기(5장) ▷ 삼각 접기 ▷ 메시지 책 접기 ▷ 그림 이어 붙이기 ▷ 책 표지에 붙이기(완성한 아코디언이 중심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책 표지의 꼭짓점과 내지 밑선에 맞춰 잘 붙이기) ▷ 아코디언 모양 완성하기 ▷ 꾸미기(책에서 오린 그림 조각을 스프링을 이용해 표지 안쪽에 꾸미기)

〈아코디언 책 이야기 구성〉



아코디언 책북
메시지 책 5장을 접은 모습.



냥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꾹, 딸꾹.”
“이런, 큰일이야.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말합니다.

“딸꾹, 딸꾹.”
병원에 다녀와 약을 먹었지만,
냥이의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당나귀가 슬그머니
도깨비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으악!”
냥이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
냥이의 딸꾹질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친구들이 몰래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꿈도
꾸지 않습니다.
냥이는 친구들 덕분에
딸꾹질이 멈춰 행복해졌습니다.



- 별거벗은 임금님의 날 (2024년 7월 18일)

‘별거벗은 임금님’ 그림책으로 사각 접기를 이용한
팝업북을 만들었다. 사각 접기를 중앙에 부착하고,
각 장면을 표현할 캐릭터나 그림을 오려 구성한다.
사각 기둥과 스프링 접기를 함께 사용하여 각 요소를
부착하면 3D효과가 더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화



별거벗은 임금님 (앞면)



별거벗은 임금님 (뒷면)

의 각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이
들에게 재미있고 생동
감 넘치는 시각적 경험
을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았다. 책을 펼치면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
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
어, 동화를 더욱 흥미
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아는 그
림책은 이제 버리면 안
된다.

– 피노키오로 꾸민 180도 팝업북(2024년 7월 25일)

출판사가 다른 버전의 『피노키오』 책을 180도 팝업북으로 만들었다. 먼저 책의 안쪽에 배경이 될 그림을 양쪽에 부착하고, 큰 그림 한 장을 선택하여 두 번 접고 윤곽선을 오려 책의 한쪽(윗쪽)에 세운다. 이 그림은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하며, 그 좌우에 캐릭터나 사건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추가로 배치한다.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 180도 팝업북은 책을 펼치면서 텍스트 없이도 시각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독특하고 흥미로운 매력을 선사하였다.



피노키오의 긴 코를 강조하고 배경 그림의 좌우로 할아버지와 상어를 꾸며 보았다.

– 정리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내가 만든 팝업북을 보며 스스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서투른 솜씨였던 내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책을 찢고, 접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제작 방법을 익히며 점차 성장한 듯하다. 7개의 결과물은 함께 작업한 선생님들과 전시회를 열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앞으로도 배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멋진 팝업북을 만들고 싶다.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작가님과 함께 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귀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안도서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작품 전시회

- 기간 : 2024. 8. 26. ~ 8. 30
- 장소 : 가좌초등학교 도서관
- 참여 학생 및 교직원 수 : 약 450명

2024년 5월부터 진행된 10회 장기 연수의 결과물들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좌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전시하였다. 이번 순회 전시는 주안도서관과 함께 기획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그림책 업사이클링의 다양성과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시 일주일 전부터 도서관과 교실 곳곳에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행사를 알 수 있었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도 직접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평을 남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에게도 작품 관람을 독려했다.

가좌초등학교 가족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작품 감상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적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되었다.



사전 전시 배너 설치(도서관 입구)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감상하는 모습



학생 및 선생님들의 감상평

새로 태어난 그림책, 어떻게 읽었나요

(동료, 학생들의 반응 소감)

가좌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적은 감상평 포스트잇이 칠판을 가득 메웠다.

“또 하나의 멋진 예술로
감사합니다.”

“환상적인 전시를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책으로 다른 느낌을 받았다. 생동감과 입체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 폐도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해요. 전부 다 너무 이뻐요, 특히 뭔가 팝업이 좀 더 생생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특히 박스 안에 있던 것이 살짝 미니북 느낌이 들어 생동감이 있고 재밌었다.”

“입체적이라 더 실감나요.”

“재활용했다는 것이 멋지고 나도 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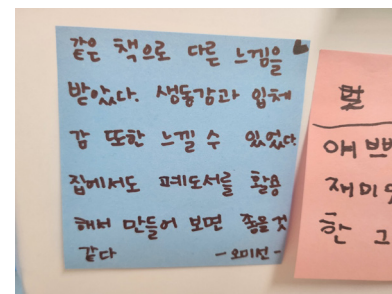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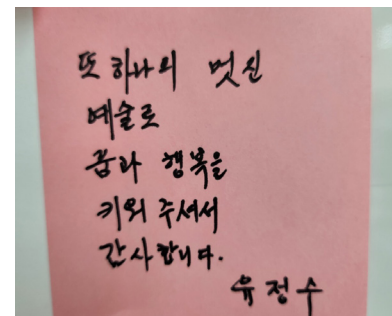
“책 속 주인공들이 마치 살아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선생님 작품이 너무 멋지고 구성이 다양해서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드셔서 눈 호강하고 갑니다.”

“마치 그림 세계에 온 것 같아요.”

“글씨를 잘 모르거나 책을 읽기 싫어하는 친구가 팝업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2

네잎 클로버

/ 이영화(인천청일초등학교)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는
내게 온 행운이었습니다.”



출발

업사이클링 팝업북 연수의 첫날은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오후에 시작된 수업에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스프링 접기 등 다양한 종이접기 기술을 배우며 팝업북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종이접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도전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때로는 종이가 쉽게 접히기도 했지만, 어려운 각도와 형태가 나올 때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려움조차 배움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종이접기를 넘어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기회였다.

강사님이 강조하신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은 큰 영감을 주었다. 평소에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배우며, 머릿

속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늘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특히 노란색 옷을 입은 강사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 모습은 수업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고,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강사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주셨고, 그 덕분에 수업은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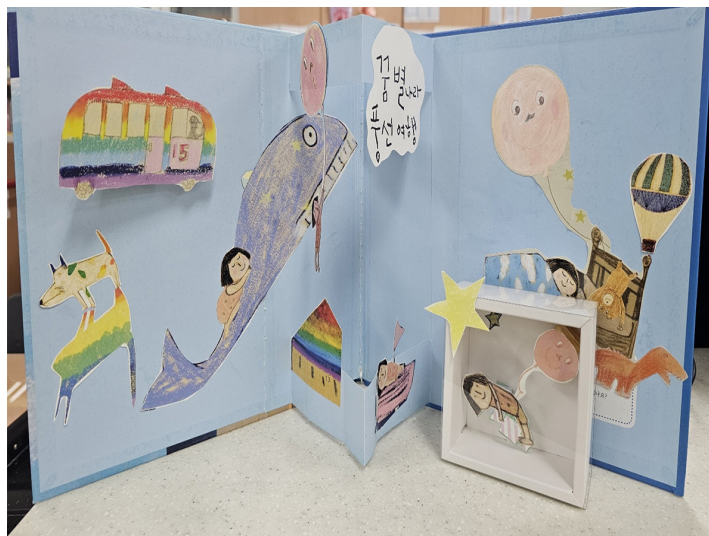
정신없이 지나간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거리와 푸른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오늘 배운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지 걱정되었지만, 그 순간의 행복한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



다양한 접기

믿는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연수의 첫날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고,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기대된다.



업사이클링 첫 수업, 나의 첫 작품

풍선을 타고 꿈속의 별나라를 여행하며 상상했던 경험을 표현한 작품이다. 꿈속에서 만난 고래와 공룡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에 든 풍선을 타고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곰돌이 오마르의 꿈』

옛날 옛적, 푸른 숲 속 작은 마을에 귀여운 곰돌이 오마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스케이트를 타고 멋진 선수처럼 달리고 싶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며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으며,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마르는 스케이트를 타다 자꾸 넘어졌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음이 맞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려도 종이 위에는 생각처럼 멋진 결과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종종 뒤통수를 맞았지요. 그럴 때마다 오마르는 속상하고 힘이 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마르는 매일같이 꾸준히 연습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스케이트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연습을 했고, 노래를 부를 때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색과 선에 더 신경 쓰며 연습을 이어 갔습니다.

오마르의 노력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에게 큰 응원을 보냈습니다.

“오마르, 넌 할 수 있어! 계속 연습해!”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꿈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오마르는 더욱 힘을 내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마르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면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노래는 피꼬리처럼 아름다워졌으며, 그의 그림은 점점 훌륭한 작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버려진 그림책으로 만든 '꿈들이 오마르의 꿈'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오마르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도전하는 길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마르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마르는 항상 새로운 꿈을 꾸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성취는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푸른 숲속 마을에서는 언제나 오마르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붉은 달은 품은 숲』

- 같은 책 다른 팝업북 10개로 새로운 이야기 탄생
- 같은 책 제목 :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어느 평화로운 밤,
붉은 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숲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숲에는 코끼리, 사슴, 흰 말,
그리고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붉은 달빛 아래에서 동물들은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커다란 코끼리가 움직이자
숲속은 시끄러워졌다.
“우르르!”
코끼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자 작은 새들이 놀라
나무에서 날아올랐다.
그때 어디선가 사자의 커다란 고함이 들려왔다.
“어흥!”
사자의 소리에 나무를 타고 있던 원숭이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 깜짝이야!”



원숭이의 소리에 숲속에 숨어 있던
멧돼지, 개미핥기, 그리고 사슴이
고개를 내밀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던 너구리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자는 더욱 큰소리로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외쳤다.
“어흥! 내가 누구인지 보여 주마!”



사자의 고함에 놀란 멧돼지가
두 발로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우르르! 무슨 일이야?”
덩치 큰 멧돼지는 사자의 큰 목소리에
관심이 생겼다.
나무 위의 원숭이와 새도
이 광경을 바라보며 구경했다.



“무슨 일이야?”
 사슴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 소리는 분명 목소리 큰 사자일 거야.”
 사슴의 말이 끝나자,
 사자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목소리가 클 뿐이야!”
 사자의 말에 다른 동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사자는 원래 목소리가 크지!”



붉은 달이 점점 커지면서
 숲속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흰 말은 달빛을 받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멧돼지는 즐겁게 점프를 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타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사자의 큰 목소리는
여전히 숲속에 울려 퍼졌다.
“봐! 내가 이렇게 큰소리를 내도 모두가 행복하잖아!”
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동물들은 사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사자가 있어서 우리는 더 즐겁지!”



숲속 친구들은
각자의 개성과 소리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붉은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 가면서 붉은 달은
더욱 밝게 빛났다.
숲속 동물들은 서로의 곁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켜 주기로 약속했고,
이 아름다운 숲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붉은 달 아래에서, 이 숲속 친구들은
언제나 우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늘 곁에...

출근길에 들은 라디오 DJ의 한마디,

“오늘도 당신 거예요.”

이 짧은 말은 누군가에게는 사랑, 행복, 아름다움,
그리고 나눔 같은 따뜻한 단어들의 집합체일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곁에 항상 함께하는 친구다. 동서남북,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그 친구는 변함없이 존재하며,
내 삶의 동반자이자 나의 일부가 되어 준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하다. 힘든 날에는 그의 손길이 나를 감싸 주고, 기쁨의 순간에는 그의 웃음이 내 마음을 더욱 환하게 한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소중하다.

오늘은 그 친구와 함께 팝업북 업사이클링 연수를 듣는 날이다. 무더운 여름날, 매미의 노래처럼 그의 존재는 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여름날 오후, 매미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눈다.

또한 청개구리가 등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는 나의 짐을 털어 주고 나를 보듬어 준다.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은 어떤 날씨와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나에게

힘과 위안을 준다. 그가 곁에 있어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해도 그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그의 존재는 내 삶의 소중한 빛이자,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에게 감사하며,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간직하고 싶다. 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보물이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피노키오의 여정』



피노키오 아코디언 책을 한 장씩 펼치면
음악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1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피노키오를 사랑했다. 그의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 덕분에 피노키오는 훌륭한 남자아이가 되었다. 피노키오는 순수한 눈빛과 호기심으로 언



#1

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매일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2 어느 날,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피노키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서커스는 그에게 신비로운 모험의 세계처럼 보였다. 호기심에 가득 찬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 서커스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조명과 멋진 공연에 매료된 피노키오는 서커스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3 특히 붉은 수염을 가진 마술사는 피노키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술사의 재주와 매력적인 말투는 피노키오를 더욱 끌어당겼고, 결국 그는 마술사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마술사는 피노키오의 순수한 호기심을 이용해 그를 먼 곳으로 팔아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4 서커스의 화려함에 폭 빠진 피노키오는 자신이 마



#2



#3

술사의 계략에 빠져 제페토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노키오는 곧 그리운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멀어지며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렸다.

#5 마침내 피노키오는 긴 여정 끝에 제페토 할아버지와 재회했다. 두 사람은 깊은 감동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피노키오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사랑과 신뢰가 어떻게 사람을 지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4



#5

인천 청일초 꿈샘도서관 “재밋고 신기한 팝업북 전시”

내가 만든 작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었다. 이 귀한 작품들을 도서관에 전시하기 위해 나의 손과 발은 한없이 바빠 움직이고, 기쁨과 흥분으로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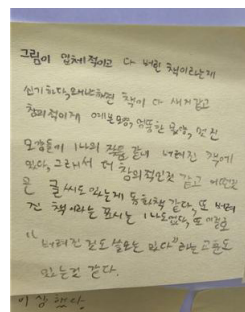


새로 태어난 그림책, 어떻게 읽었나요?

(동료, 학생들의 반응 소감)



나도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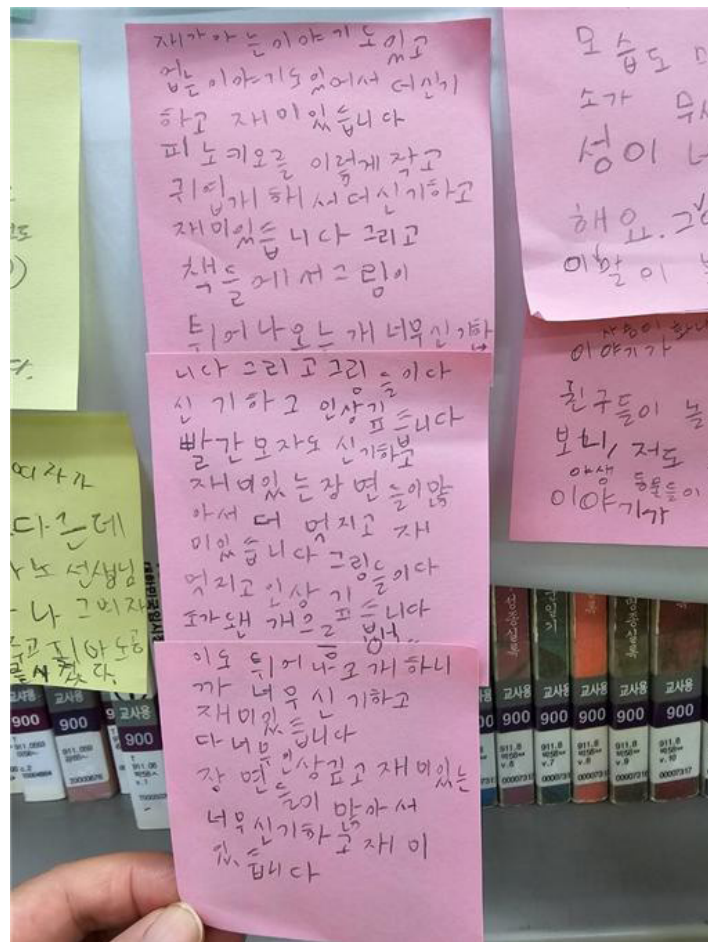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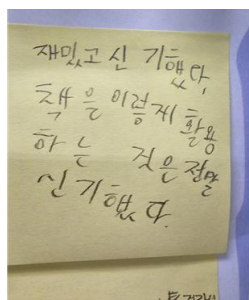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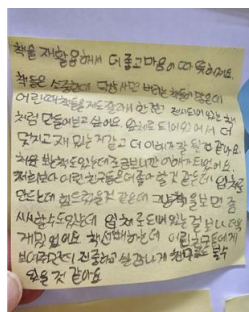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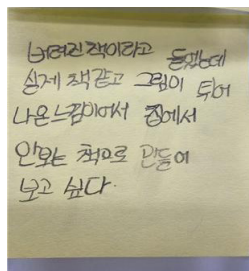


➡ 그림이 입체적이고 다 버린 책이라는 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책이 다 새거 같고 창의적이게 예쁜 모양, 엉뚱한 모양, 멋진 모양들이 하나의 작품같이 버려진 책에 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인 것 같고 어떤 것은 글씨도 있는 게 동화책 같다. 또 버려진 책이라는 표시는 하나도 없다. 또 이걸로 “버려진 것도 쓸모는 있다”라는 교훈도 있는 것 같다.

▶ 버려진 책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책 같고 그림이 튀어나온 느낌이어서 집에서 안 보는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 책을 재활용해서 더 좋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책들은 소중한데 막상 사면 버리는 책들이 많은데, 어릴 때 보았던 책들을 저도 잘라서 한번 전시되어 있는 책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입체로 되어 있어서 더 멋지고 재밌고 이해가 잘 돼요. 처음 보는 책도 있는데, 조금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은 더 좋아할 거 같고, 입체로 만드는 데 힘들었을 거 같아요. 그냥 책을 보면 좀 시시할 수도 있는데, 입체로 되어 있는 걸 보니 더욱 재미있었어요. 책 선배 하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 더 집중하고 실감 나게 친구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재밌고 신기했다. 책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3

일신우일신

/ 문현정(인천안남초등학교)

“막막했던 처음과 달리,
작품이 점차 완성되어 가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과 병행하며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꾸준히 발전할 수 있어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의 탄생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흥미롭고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창의력과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었고,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주요 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1. 흥미를 가지다

처음,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만들기로 결심한 건 작년에 책 읽어 주는 어머니들과 같이 팝업북을 만들어 보고, 맘에 들어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강연이 있어 팝업북 수업을 신청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책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낡고 찢어진 그림책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들을 오리고 붙여 가면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2. 계획과 설계

업사이클링 팝업북의 콘셉트를 정하는 과정이 중

요했습니다. 기존의 그림책 속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팝업 형태로 변형할 때의 창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각 페이지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구조의 팝업이 적합할지 고민했는데, 안선화 작가님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팝업 구조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3. 재료 준비와 작업

책의 페이지를 분리하고, 각 페이지에 맞는 팝업 요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접고, 자르고, 붙이는 작업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팝업 구조를 만드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페이지를 열 때마다 매끄럽게 펼쳐져야 했거든요. 몇 가지를 배우고 그 중 그림책에 맞는 팝업북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제 해결

작업 중에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팝업 요소가 잘못된 위치에 붙여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

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5. 완성된 책의 전시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완성된 팝업북을 펼쳐 볼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각 페이지가 펼쳐질 때마다 마법처럼 살아나는 이야기와 팝업 요소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책을 전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이 특별한 책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책장을 뜯고 접어서 오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6. 소중한 배움과 기쁨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만들면서 가장 큰 기쁨은 오래된 책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창의력과 기술적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책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보다 창의성과 인내가 결합될 때, 오래된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재탄생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면서, 창의적인 작업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장을 뜯고 접어서 오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행복한 피노키오』

피노키오의 책을 가지고 새 활용(업사이클링)으로 아코디언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줄거리도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만들면 되니 온전한 나만의 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행복한 피노키오 (아코디언책)



나무로 피노키오를 만드는 할아버지



거짓말을 계속해서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피노키오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 행복해지는 피노키오



요정을 만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됨.

『피노키오』는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동화입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라는 목수가 자신을 만들어 준 것을 알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피노키오는 여러 가지 모험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유혹에 빠져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착

한 소년이 되어 진짜 아들이 됩니다.

위 내용이 원래 피노키오의 원래 줄거리라면 내가 만든 팝업북에서는 피노키오만을 중심으로 팝업북을 완성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피노키오를 만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는 거짓말로 인해 코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바다로 뛰어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는데 많이 늙은 피노키오는 요정의 도움으로 사람이 됩니다. 그 기쁨을 할아버지와 나누고 행복하게 잘살게 됩니다.

책은 피노키오가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교훈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팝업북에서도 결국 피노키오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만 책임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책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코디언책으로 선택한 피노키오는 펼쳐 보는 재미가 있고 중심이 되는 내용을 잘 선택해서 예쁘게 나만의 시각으로 꾸며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멋진 나무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책 다른 결과

또 하나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책
바로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팝업북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읽기 자료를 넘어 각기 다른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책이지만 10명이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미면 그 결과물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같은 이야기 속의 같은 캐릭터와 장면들이지만, 각 팝업북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 사람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색상, 형태, 구조 등은 모두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시각과 개성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런 팝업북의 세계는 내용 자체를 넘어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내용이 똑같더라도 팝업북의 디자인과 구성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새

로운 감동과 경이로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각각의 팝업북은 직접 손으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직접적인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팝업북은 단순한 독서 경험을 넘어서 창의적인 표현과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입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를 통해 10명이 각자 독특한 해석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또 자신만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위질과 풀질로 완성된 나만의 팝업북이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이라 더 정이 가고 가장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8주 동안 퇴근 후 주안 도서관에서 배우고 만든 팝업북을 전시했습니다. 10명을 두 개의 조로 나누어 5일간 전시하기로 했으며, 저는 세 번째 순서로 당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만든 팝업북을 알리고 자랑하며, 다음 기회에는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안 도서관의 이지윤 선생님이 학교 도서관까지 팝업북을 직접 배송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러 가려 했으나 일이 생겨서 도움을 받았고, 금요일 퇴근 후 배송받은 팝업북을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전시 장소에 세워 놓았습니다.

행사 첫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전시해 놓은 팝업북



줄을 서서 전시된 팝업북을 구경하는 아이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팝업북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소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로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였던 것을 넘어, 교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팝업북의 종류와 제작 과정, 그리고 제 노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물론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과 직원들까지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팝업북에 대해 크게 반응해 주셔서 더욱 신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팝업북의 신기함과 입체감에 감탄하며, “책은 평평한 종이들인 줄 알았는데,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놀라웠다. 다양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고학년 학생의 멋진 표현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교직원분들은 팝업북의 다양한 종류와 가능성에 놀라워하며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팝업북을 볼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되거

나 읽지 않는 책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셨고, 팝업북이 아이

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단순히 읽던 책이 입체적으로 변화하니, 아이들이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호가 될 것이라며, 팝업 제작 경험으로 아이들이 책 속으로 다시 빠져 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한 기회가 된 팝업북 전시 행사였습니다.



4

팝업 상담소

/ 김정은(인천송도초등학교)

“팝업북 만들기를 통해
내 안의 어린이를 만나고
내 곁의 어린이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평! 하고 튀어오르는 '나'라는 그림을 읽는 시간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팝업북 만들기 수업 첫날. 내게 위안을 준 말이다.
성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어른들이 해야 한다. 아이의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에 선부른 조언을 해 주기에 앞서 저마다 그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공감해 주고 믿어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버려진 그림책으로 자신만의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많이 닮아 있다. 스스로 그림을 선택하고 붙이고 다시 떼어 내는 과정의 반복, 조각 그림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과 순간의 경험이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 유사하다.

처음 무언가를 배워 익히는 일은 어른들도 막막하다. 팝업북을 처음 만들며 선생님에게 자꾸만 질문하고 확인받아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과 도움 요청에 작가님이 해주신 진심 어린 대응은 든든함과 뿌듯함을 주었다. 내 곁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학생 :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나 : “응,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걸 버려진 그림책 이거든. 마음에 드는 멋진 것들은 버리지 않고 각자의 집에 있을 테니까.”

버려진 마음들을 들추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다시 찾아내는 작업은 당장은 힘겨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만의 개성과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자르고 붙이며 생각을 비우는 팝업북 만들기 작업



영어 그림책으로 만든 팝업 무대책

을 통해 단순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충분히 멋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작품들 속에서 많이 발견하였다. 다른 사람의 그림책은 내 것과 크기도 그림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걱서걱 종이가 잘리는 소리가 주는 쾌감과 말끔하지 않고 거칠게 잘린 종이의 단면을 허용하는 마음으로 팝업북 만들기 첫날의 마음을 마무리한다.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세상 만나기

한 권의 책을 읽으며 나의 이런 모습을 바꾸어야지 다짐한다. 그런데 왜 또다시 그 모양으로 행동하는가. ‘나는 안 될 모양이다.’ 하는 자괴감에 빠진 상태에서 주안도서관으로 향했다.

수업 오는 길의 느낌 알아차리기, 수업 중 다른 사람들의 도란도란 말소리 듣기, 작업 중과 작업 후의 단상 기록해 두기, 글을 잘 쓰려는 욕심 비우기 등 만들기과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는 작가님의 말에 용기를 얻기 시작한다.

팝업북 만들기를 배우며 풀기둥(풀 칠할 부분), 풀지붕, 풀마당 등 새로운 단어들을 익힌다. 세상살이도 매순간 다양한 감정

과 마음의 단어들을 익히는 과정일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작품인 것들이 어른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이의 작품을 계속 보관하는 것에 난처해하는 부모들에게 작가님은 “최소 한 달은 전시해 주세요. 10번은 다시 봐 주세요. 그 후에 버릴지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



그림책 '정원에 누가 있을까?'로 만든 팝업 상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명확한 답을 원할 때가 많다. 자녀를 향한 배려가 담긴 작가님의 명쾌한 대응법에 부모들도 만족했으리라.

당황이 아닌 당당이 되기

오늘의 버려진 그림책은 『아름다운 실수』

작은 얼룩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 실수를 실수로 끝맺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길 것인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누가 볼까 눈치 보며 숨겨 버렸기에 실수로만 끝맺었던 내 수많은 경험들이 떠올랐다. 예기치 못한 실수의 상황 속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당황이’처럼 후드를 깊이 눌러 써 버렸었다. 그러고는 실수하지 않은 듯 덤덤한 척 연기해 왔다. 나를, 내가 만들어 낸 것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를 허비하며 자주 지쳐 버렸었다.

작은 얼룩 한 점에 새로운 선을 연결하고, 다른 색을 덧입히면서 나의 부족함, 취약점을 드러내는 ‘당당이’가 되고 싶다.

내 마음에 마법 걸기

오늘 함께 할 그림책들을 찬찬히 살핀다.

주인공 도로시가 한 ‘함께 가는 길은 두렵지 않다’는 말에 이끌려 그림책 『오즈의 마법사』를 가슴에 품고 작업대로 왔다.

페이지가 될 면지 4장과 방이 될 면지 2장을 정하고 풀자리를 접어 펼칠하고, 종이 양끝 모서리를 맞추어 붙이면 방책 만들기 기본 작업이 끝난다.

내 것만 어긋나 있고 조화롭지 못한 것 같은 속상함이 밀려 온다. 모서리를 맞추는 순간 나는 정말 최



그림책 오즈의 마법사로 만든 팝업 방책

선의 풀칠을, 정교하게 양끝을 맞추려는 노력을, 먼 지들의 조화로움을 충분히 견준 선택을 했던 걸까.

방금 전 작업 과정을 반추하며 후회를 하다가 예쁜 팝업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나만의 마법사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 먹는다.

생각과 마음은 휘발유 같아서 처음의 진한 냄새는 곧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다.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의 마음들을 글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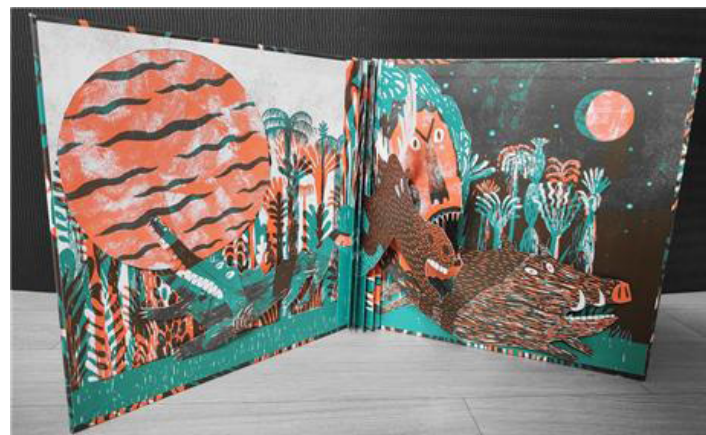
내 안의 어린이 발견하기

오늘은 모두 같은 그림책으로 작업을 한 날.

그림책 속 그림들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풀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하며 팝업북 작업을 시작한다.

동물 그림의 이빨, 뿔, 커다란 몸집으로 시선이 향한다. 내 마음을 이끄는 동물들은 하나같이 성난 이빨을 드러낸 모습, 뾰족한 뿔을 세운 모습, 커다란 몸집으로 빠르게 달려 나가는 모습들이다. 둥글지 못한 나의 마음들이 한껏 커지고 사나워진 모양이다.

팝업북 만들기 수업을 통해 그림책 속 그림들을 오래 깊이 보게 되었다. 글이 아닌 그림이 하는 이야기



그림책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로 만든 팝업북

를 귀 기울이게 된다. 나를 이끄는 그림들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다.

같은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팝업북 작품을 감상하는 연수생 선생님들의 모습이 더없이 소녀 같다. 팝업북 장면 하나하나를 각자의 스토리로 엮어 보라는 과제에도 모두가 마치 재미난 놀이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팝업북 만들기를 통해 내 안의 어린이와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피노키오처럼 나 알아차리기

나의 『피노키오』 책은 앞 표지가 쿠션감이 드는 소재로 되어 있어 특이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자신을, 누군가를 속이려 할 때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을까. 피노키오의 코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반성과 후회도 한결 빠르고 쉬울 테지만, 보이지 않아 더 무섭고 빠르게 커져 버리고 있는 건 무얼까.

거짓말, 눈속임 등의 결과가 피노키오의 코처럼 즉각 눈에 보이면 좋겠다. 어른들의 다그침과 잔소리에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경우도



그림책 『피노키오』로 만든 사각주머니 팝업북

많다. 잘못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 일 것이다. 타인이나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 스스로의 관점에서도 명백히 잘못임을 인식해야 문제 행동이 고쳐진다. 피노키오가 길어진 코로 자신을 인식 하듯 아이들도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꾸준히 배울 필요가 있다.

팝업북을 활용한 WEE클래스 상담 이야기

감정 조절 문제와 수동 공격적 태도로 의뢰된 5학년 여학생과 팝업북을 활용한 위(Wee)클래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1회기 상담 시간에 내담 학생이 선택한 그림책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다. 등장한 호랑이의 표정이나 행동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못생겼다, 귀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하면서 팝업북을 만들어 나갔다.

입을 크게 벌린 호랑이를 책 중앙에 배치한 후, 손을 꼭 잡은 오누이가 그 입 속에 잡아먹히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잡아먹히고 있는 오누이의 표정은 어때?”

“어? 무서워서 울고 있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하늘색 펜으로 오누이의 눈물을 그렸다.

다 만들어진 팝업북을 보면서 동굴 같은 호랑이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누이의 모습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학생의 마음이 오버랩되었다.

2회기 상담 시간에는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빛 마술사』로 작업을 하였다. 학생이 선택한 그림 조각은 ‘집, 눈사람, 그림자 토끼, 손가락, 별빛’이었다.

“손가락이 집을 가리키고 있네?”

“이 집은 따뜻하고 예쁜 집이에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토끼가 아이한테 주스를 마시라고 주고 있어요.”



1회기 상담 : 그림책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회기 상담 :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빛 마술사』

“장면 윗부분의 이야기도 좀 더 들려줄래?”

“별빛을 정성스럽게 오려서 붙였어요. 반짝거려요.”

학생이 처한 가정 환경은 눈 오는 배경처럼 차갑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노란색 집을 통해 안정되고 따뜻한 공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별빛 그림을 찾아 의미를 두고 붙인

것을 통해 어둠 같은 불행에 갇히지 않고 빛과 희망을 찾아가려는 학생의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학생의 무의식과 내면의 소리가 표현되는 것을 보며 팝업북 만들기는 심리 상담의 도구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팝업북 상담 3회기 그림책은 『돼지가 되어 보자』.

내담 학생은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의 주인공 거스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스, 빨강 물감으로 옷을 더럽히며 놀고 있는 거스, 좋아하는 고양이를 쳐다보는 거스의 눈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거스는 빨강 물감으로 색칠하다 옷을 더럽혔고,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옷을 걸친 지저분한 행색이지만 표정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행복은 기쁘고 들뜬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 한다면 거스는 가장 행복한 아이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불행한 것이라고 동일시하기도 한다. 어떤 촉발 사건이나 자극 요인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부정 감정이 곧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팝업북 상담 4회기 마지막 날이다. 내담 학생은 뭔가 새로운 게 없냐는 듯한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림을 고르고 자르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진보라색의 탐스러운 포도 넝쿨, 두 눈 가득 웃음을 띤 채 폴짝폴짝 포도를 따려는 아이의 표정, 아이가 탄 포도 한 알을 두 손에 꼭 쥐고 먹고 있는 여우의 시선이 상담자인 나의 눈에 유독 들어왔다. 나는 여우가 몰래 훔쳐 먹은 듯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담 학생은 포도를 기꺼이 내어 준 아이에게 고마워하는 표정이라고 했다.

원본 그림책의 내용을 모른 채 표정과 행동만으로 등장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각자의 경험과 시선으로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팝업북 만들기의 매력이다. 팝업북 만들기 작업 후에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를 더 그렇게 보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



3회기 상담 : 그림책 『돼지가 되어 보자』

내담 학생이 마지막으로 골라 붙인 그림은 아빠와 딸이 손을 잡는 있는 모습이었다. 둘은 지금 포도를 닦으러 가고 있다고 한다. 아빠가 앞장서고 딸은 아빠 손에 이끌려 가고 있다.

“아빠와 딸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어?”

“아빠가 포도 닦으러 가자고 말하고 딸은 귀찮아하고 있어요.”

“아빠랑 달리 딸은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런데 아이는 귀찮다면서 크게 웃음 짓고 있네.”

“귀찮아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담 학생은 한 학기의 상담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한부모 가정임을 알았기에 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따로 물어본 적도 없었다. 물론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담 학생의 입을 통해 아빠와 딸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에 대한 적극적 추론을 한다. 아이도 아빠와 손을 잡고 투정 부리며 함께 포도를 닦아서 먹는 소소한 일상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책의 저자가 인지적 공감을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팝업북 작품을 보면서

나는 오늘 이 아이의 신발을 신고 잠시 걸어 보았고 아이를 더 깊이 느껴 보았다.

늘 해 오던 언어 상담이나 상담 도구만으로 끄집어낼 수 없었던 마음들을 오늘 세상 밖으로 잠시 꺼내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다시 아이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 버린다 해도 괜찮다. 숨기고 싶었던 상처 난 마음도 막상 꺼내고 보니 별것 아님을, 툭툭 털어 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

5

다 소중한요

/ 이경남(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버려진 책들의 재활용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마음이 팝업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칫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었던 책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이 소중한합니다.”



다 소중해요

얌전하게 지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과 본인이 하고픈 것 중에 진정한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가 되더라도 변화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실제 하고 싶은 마음이 달라 고민했지만 마법처럼 용기를 내보았어요.

오! 어린이든 어른이든 속과 일치하는 본인 모습으로 지내 보니 만족스럽네요. 아, 상쾌하다!



‘무대책’ 캐릭터를 붙이고 화면을 구성하면 무대책 완성

그래도 타협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같은 책 다른 이야기.



#1 타협이 안 되나 봐요.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 뿔이 울그락 불그락 합니다.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나무가 거꾸로 엎어질 만큼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2 둘만의 일이 아닌 것이 이들 사이에 낀 주변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오잉? 눈은 뜨고 있지만 움짱 달짝하기 힘드네요. 호랑이도 한 눈은 질끈 감고 간신히 한쪽 눈만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3 감정의 날이 뽀족하게 솟아났어요. 아마도 토끼는 까맣게 애를 태우고 있는 듯 합니다. 과연 자신만이 옳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호랑이까지 발톱을 세우면 짜당하고 흰 말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4 뜻밖의 상황에서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전체를 두루 잘 살피는 호랑이가 되어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서로 멈춰서 한 템포 쉬며 넓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나무는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대립 관계보다는 원활한 소통이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림책 『피노키오』의 재탄생

‘180도 팝업북’을 돌려 읽기

제페토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깎아 만든 피노키오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는 어울려 지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넓은 세계는 새롭고 즐거워 보이는 신세계입니다.





코가 길어지네!

순간의 위기를 거짓으로 모면하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지 않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주변엔 쉬운 길로 가자는 유혹도 있지만 정도로 이끌어 주는 힘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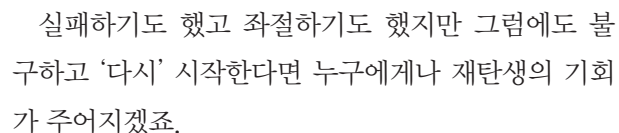


그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먼저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후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고 더 나아가는 반성의 방법도 있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올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밀려 드는 혼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야겠어요.



팝업 그림책 만들기에 참여한 각 학교별로 순회 전시회를 열어 나눔의 체험을 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찾은 교직원과 학생들은 전시된 책들을 보고, 다양한 형태의 팝업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상했습니다. 팝업 그림책이 만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재탄생했듯, 작품을 감상한 후 한 줄 느낌을 적어 보는 활동도 각자 색다르게 표현되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안선화 정크 아티스트의 말처럼,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읽기쓰기 활동이 되었습니다.



6

그냥은 없다

/ 강예림(인천서림초등학교)

“저에게 그냥은 의미가 없어서 붙여지는
부사이자, 이유가 너무 많아서 쓰는
얼버무리기 딱 좋은 부사입니다.
표현을 못 하다 보니 후자를 많이
애용하는 바람에 가끔은 그냥에 갇혀
불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전자로 쓰였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냥은 없다

강사님께서 내용이나 주제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처럼 책을 고르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위질에도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냥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지 않도록 활동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가벼움을 가장한 바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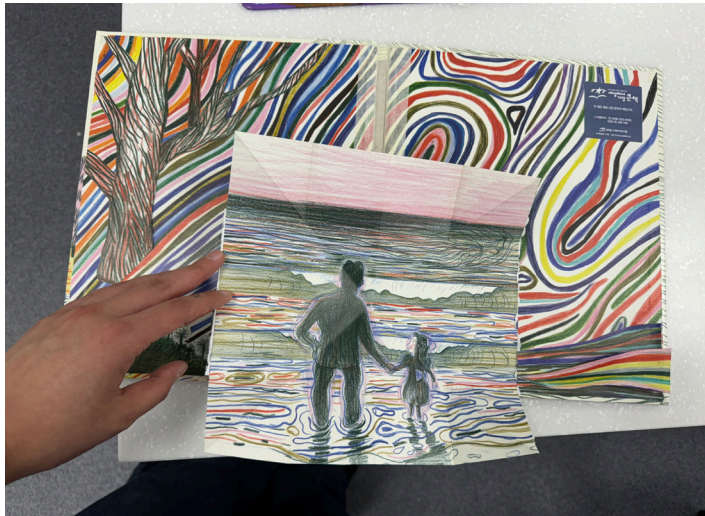
시선에 따라 눈에 띈 부분들만 모아 만든 작품! 기
분과 시선에 따라 매번 다르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
니, 그림을 허투루 볼 수 없어 선택이 늘 늦어집니다.
놓치는 것이 없기를 바라며, 살살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 이유로 수명을 다한 그림책이 업사이클링 팝
업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형태로 탈바꿈되어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평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잘하고 싶은 마음
에 담고 싶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의 방향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과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수업에 늦게 참여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작업하고 싶은 책이 꼭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내 책인 것만 같고 인연이자 운명 같고, 제 눈에 안정
 같습니다. 강사님이 저희 취향을 미리 알고 고려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은 순전히 작가만 보고 고른 책입니다.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책은 늘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물
 론 기대와는 다르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책도 있었
 지만요. 하지만 책 속의 그림들은 언제나 마음에 쏙
 듭니다.



마음에 드는 다섯 쪽의 그림을 나열하고, 스토리
 텔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표할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해야 겠다고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제 차례
 는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꾸며 냈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있었던 기억
 이 사라진 듯 말이죠.

자신 있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들의 모
 습이 생각납니다. 참 멋있으셨어요.



몇 번의 활동을 하다 보니, 오리고 붙이는 작업만 봐도 어느 분이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맞추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만든 결과물을 맞춰 보라며 퀴즈를 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퀴즈 내려고 활동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죠.

한번은 친구도, 형제도 내 결과물을 맞추지 못했는데, 엄마께서 단번에 맞추셔서 “역시 엄마다” 싶었던 몽글몽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두세 차례 결석을 해서 숙제를 해 간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 간 작품이 아닌 데다가 혼자 해보는 작업이라 엉성한 마감 모양새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취감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큼니다.



헌책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학교 아이들과 함께 헌책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그림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신중하게 헌책의 날장을 고르고, 종이박스 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며냈습니다.

특별한 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각자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와 아이들 모두가 헌책의 날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이 하나둘씩 완성될 때마다 그 작품 박스를 벽에 기대어 쌓았는데, 마치 거대한 작품 전시회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품의 개수에 대한 욕심이 생겨, 한 번 더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더 주기도 했습니다.

헌책을 활용한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상상력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

여러 학교의 도서관 담당자들과 함께 10회에 걸쳐 만든 팝업북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회는 5일간 열렸고, 저는 아이들이 작품을 직접 만지고 펼쳐 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작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현장감 있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책을 활용한 수업을 준비 중이던 선생님 덕분에 1학년 1반 친구들이 그 작품을 집중해서 관



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전시회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멋진 작품들 사이에서 내 작품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작품들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현책으로 만들어 낸 작품들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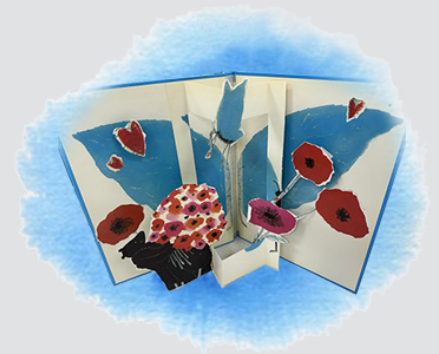
이런 특별한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

보람 한가득

/ 권효진(인천부개서초등학교)

“버려진 그림책으로
각자의 개성을 담아 팝업북을 만드는 것은
요리와 닮아 있는 듯합니다.
힘들었지만, 잘 차려진 한 상을 마주한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재미없었는데...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연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나는 처음으로 업사이클링 팝업북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연수는 줌(Zoom)으로 진행되었고, 팝업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림책과 북 폴더가 담긴 종이 쇼핑백을 택배로 받았다. 온라인에서 다른 참여자와 함께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연수 중에도 대출 반납 업무를 병행하느라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집중력도 쉽게 흐트러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연수는 지루하게 느껴졌고, 결국 내가 완성한 팝업북은 어설피고 만족스럽지 않았다. 연수가 끝나자마자 그 팝업북을 한번도 펼쳐 보지 않고 접어 두었고, 지금은 그 팝업북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내가 10회기 연수를 신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10회에 걸쳐 팝업북을 만들고, 그 작업에 대한 글을 써서 책까지 내야 한다니,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사전 연수에 참석하면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했다.

작가님이 준비한 그림책을 단순히 자르고 붙이기

만 하면 되는 쉬운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결과물은 여전히 초보자의 어설피른 작품이었지만,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위질하고 풀로 붙이는 과정이 점점 즐거워졌다.

온라인 연수와 달리, 대면 연수에서는 작가님이 업사이클링 팝업북 작가로 활동하게 된 과정과 수업을 하며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짝꿍 선생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도 연수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연수가 끝나고 10회기 연수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나는 ‘열심히 배워서 동아리 학생



들과 함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과 함께 오리고 자르고 붙이면서 소소한 수다를 떠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계획되는 순간, ‘해보자! 글도 그까짓 거 쓰면 되지. 내가 작가가 아닌데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글을 원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서명란에 사인을 하면서 나의 팝업북 연수는 시작되었다.



처음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의 재미를 알게 해 주고 10회기 연수에 참여를
결심하게 된 『아이코 내 코』
그림책 팝업북

그림책 만들기에 좋은 책이 있는 건가?

매주 이어지던 수업에 3주 정도의 공백이 생겼고, 그동안 꼼꼼하게 만든 방책을 꾸며 오라는 숙제를 받았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학교 일과 집안일에 몰두하느라 숙제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고, 수업 직전에서만 서둘러 준비해 온 방책을 펼쳐 보았다. 작가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6~7개 정도 먼저 오리고 나서 팝업북을 구상하라고 조언하셨던 게 떠올랐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기 위해 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드는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책은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였는데,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와 사람뿐이었다. 처음에는 예뻐 보였던 그림들이 이제는 팝업북으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등장인물들이 소와 사람만 있고, 그림들도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책이 정말 팝업북으로 만들기 어려운 책인지, 아니면 내 고민이 부족했던 것인지, 혹은 나의 실력 문제인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마치 억지로 방학 숙제를 끝내듯, 꾸역꾸역 작업을 이어 갔지만, 결국 결과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이

상 고민할 시간도 없이 수업에 가지고 갔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만들었더라면, 어쩌면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내가 이번에 팝업북을 만들면서 겪은 어려움은 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업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해 준 좋은 경험이었다.



팝업북 만들기에 좋은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소가 된 게으름뱅이』 팝업북 책

만족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후, 나는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신중해졌다. 이전의 시행착오 덕분에, 팝업북을 만들 때 어떤 그림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마다 정해진 기법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던 중, 한 책에서 마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마녀를 배경에 다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선택했다. 책을 고르자마자, 나는 마녀를 정성껏 오리기 시작했다. 마녀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가위질을 하며, 두 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마녀의 손가락 부분을 풀로 붙이는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만든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게 된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듯,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은 항상 멋져 보였고,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는 역시 창작에는 소질이 없나 봐’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이 아닌, 내 작품만 오롯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작가님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내가 잘 만들었구나, 성공했구나’라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수업 이후로, 팝업북 만드는 데 대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다.



마녀가 포인트가 되었던 팝업북 만들기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잠자는 숲속의 공주』 팝업북

자르지 말고 찢어 보자

나는 길모습과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나의 취향은 팝업북을 만들기 위해 책을 고를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생님이 여러 그림책을 가지고 오셨을 때,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그림체를 가진 책들이었다. 그날 내가 선택한 책은 파란 나비와 꿈이 빨간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긴 책이었다. 그 순간, ‘이거야! 이 책으로 팝업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가위로 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지만, 작업을 계속할수록 그 어색함이 점점 더 강해졌다. 꽃을 정교하게 오려 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며, 종이를 자르지 않고 찢어서도 만든다고 하셨다. 그 말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들은 종이를 찢어서도 만든다는데, 그렇다면 나도 가위 대신 손으로 꽃을 찢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꽃 모양을 따라가며 그림을 손으로 찢기 시작했다. 어설프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손을 사용해 종이를 찢었더니 꽃의 윤곽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그림에 생동감이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팝업북을 만드는 데 있어 규칙이나 정형화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각과 느낌을 믿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파란 나비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곰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 책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 뿌듯했다.



파란색 나비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곰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는데 그 느낌을 잘 살린 듯하다.

피노키오

길게만 느껴졌던 10회차 연수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모든 수강생들이 피노키오 그림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기법들을 활용해 자유롭게 팝업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피노키오 이야기였지만, 그림체와 분위기는 제각기 달라서, 같은 주제의 책도 이렇게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구나 싶어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언제 또 이렇게 다양한 피노키오 책을 접해 볼 수 있을까?

책을 고른 후, 페이지를 넘기며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구상을 시작했다. '방책을 만들자, 두 가지 느낌으로 꾸며 보자'라는 생각에 그림을 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방을 만들려고 하니, 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쉬운 걸 기억하지 못하다니, 당시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팝업북을 만들면서 나이 듦에 대해 느낀다는 게 조금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나는 점점 깜빡하는 횟수가 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며 생전 안 하던 메모를 시작하게 되었다.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틈틈이 사진으로 남겼지만, 왜 하필 방책 만드는 방법만 빼먹었는지 아쉬웠다.

결국 방책으로 꾸민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끝내 방책 만드는 법을 떠올리지 못했고, 작가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움을 받아 방책을 완성하고 나니 허탈한 마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말자’라고 다짐하였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연수를 함께한 동료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같은 피노키오라는 주제로 만든 팝업북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개성과 노력, 그리고 10회차 동안 쌓아 온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 역시 처음엔 어설피고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이제는 팝업북을 통해 나만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팝업북 만들기에서 얻은 배움을 학생들에게도 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창의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팝업북을 통해 느낀 작은 깨달음들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져, 그들이 스스로의 창작 세계를 펼쳐 나갈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기술 습득의 시간이 아니라, 창작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 준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연수의 막을 내렸다.



연수 마지막 날의 피노키오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스스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실력이 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를 나누며...

연수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과 함께 이 활동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서부 학생들과 팝업북을 만들며 수다를 떨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이 연수를 신청한 계기였고, 그 결과물을 학교에 전시까지 할 수 있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연수의 결과물인 팝업북 전시를 포함시키면서 그저 전시로 끝내지 말고 만들기 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폐기된 그림책도 있어서 독서의 달 행사에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공간이 좁아 팝업북을 도서관 안에 전시하면 만들 공간이 없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라는 문구를 붙이고, 도서관 앞 복도 공간에 전시하였다.

이 결정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복도가 어학실로 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이 팝업북 전시대를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 또 전시 기간이 학부모 공개수업과도 겹쳐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님들도 전시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감상평은 많이 남겨지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좀 더 써 줄 만

도 한테 말이다.

감상평 쓰기와는 달리 팝업북 만들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책에 가위질을 해본 적이 없다며 씩씩하게 잘 오렸다. 내가 한 일은 아이들이 종이를 붙일 때 책이 접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 주는 정도의 조언만 줬을 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책을 만들어 나갔다.

짧은 점심시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스프링을 제작해 두었는데, 작가님이 연수 시작 전에 보



복도 공간에 연수 기간에 만든 팝업북을 전시하였다. 복도 공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다.

여 주신 맛보기 강의를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런데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걸렸다. 책을 닳고 뜯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스프링을 사이즈별로 만들고,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다.

아이들은 스프링을 특히 좋아했다. 그래서 한 책에 여러 개의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니, 나는 매일 스프링을 만들며 풀칠하고 접는 일을 반복했다. 연수 중 작가님이 따님들이 아르바이트로 이 작업을 도와주었고, 하기 싫어했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점심시간에 팝업북 만들기 재료인 스프링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학생들

때는 그냥 흘러 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몇십 명씩 강의하시는 작가님은 수천 개의 스프링을 만들어야 했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싶었다.

일련의 과정들이 힘들기만 했다면 그저 노동에 불과했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팝업북을 만들었고,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하교 후에 다시 와서 마저 만들기도 했다. 더 만들고 싶다며 두 권씩 만드는 학생들도 있었다. 스프링 만들



팝업북 만들기 체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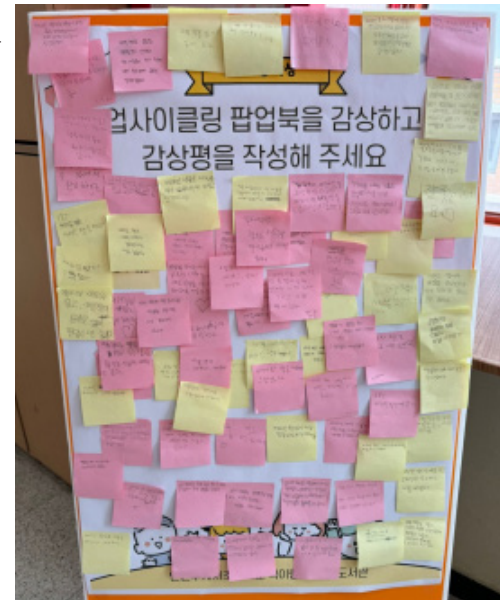
기 또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구경하던 3학년 학생들도 와서 함께 만들며 오순도순 작업을 이어 갔다. 하지만 왜인지 내 손이 더 많이 가는 듯했다.

수백 개의 스프링을 접고 나니 드디어 팝업북 전시가 끝났다. 팝업북을 다른 학교로 보내니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스프링이 모자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방감이 들었다. 빈 전시 공간은 학생들의 작품으로 채워 넣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만든 화려한 작품보다 자기 작품이 전시된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듯했다. 지나가시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내가 한 일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선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팝업북을 만든 시간이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저조한 감상평. 팝업북 감상평을 쓰셨는데, '사서선생님 좋아요'는 왜 쓰는 건데……, 하지만 내심 기뻐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가 끝난 후 다음 학교로 팝업북 작품을 보낸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시를 시작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8

환경 지킴이

/ 김연주(인천백학초등학교)

“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제발 버리지 말아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책날개 입학식 선물로 그림책 2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어떤 주제의 그림책을 아이들과 읽을지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일 년 동안 읽고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집집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이 더 이상 읽지 않아 폐기해야 하는데,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겠지요?

날마다 공문을 확인하면서 팝업북 관련 연수를 가 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솔직히 손재주가 없어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지만, 아이들은 분명 교사보다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도전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우연히 접한 업사이클링 팝업북의 세계에 빠져 바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주안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다행히 아이들과 언젠가는 그림책 재활용을 하고 싶은 욕심에 폐그림책을 모아 두어 강사님과의 협의에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활동하기 위해 팀장님과 함께 미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림책을 접어 두 었더니 생각보다 아이들 손놀림에 놀랐어요.

“선생님, 이렇게 접으면 되나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처음하는 활동이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림책을 접고 다양한 재료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붙이면서 멋진 업사이클링의 세계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집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전구에 불이 켜지자 여기저기서 감탄의 함성이 들려 왔어요.

“와, 멋져요!”

“선생님, 멋진 크리스마스트리예요!”

“선생님, 저 다시 해도 될까요?”

친구들 책이 더 멋지다며 욕심내는 아이들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멋지게 만든 크리스마스 업사이클링 책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하고 안방, 거실, 작은 방 등에 둔 업사이클링 책을 보면서 ‘역시 자원 순환의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쌓아 둔 그림책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림책, 제발 버리지 말아 주세요!’



도전은 계속된다

그림책 업사이클링에 빠진 어느 날, ‘버려진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듭니다’의 서평단 모집을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스스로 팝업북을 만들어 볼까?’ 기대하고 신나게 책을 읽었는데, 도저히 그림만 보고 팝업북을 만드는 것은 내겐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손재주 없는 나에겐 팝업북은 환상의 세계인가 하고 좌절감과 절망으로 그저 팝업북은 눈으로만 보고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어 주는 활동의 수업을 진행하던 중, 또 한번의 좋은 기회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에 기필코 팝업북 탐험에 성공해 보자, 힘내자!”

스스로 주문을 걸어 꼭 도전에 성공을 다짐하며 즐겁게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림책을 읽지 말고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제발 생각 없이 하세요.”

처음엔 강사님의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멋진 그림을 고르려는 고민에 한참 동안 그림책을 뒤적거리며 서성거리다 ‘아무 생각 없이’라는 말이 떠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 들고 ‘천천히 해

보자. 첫 시간이니 잘하기보다는 적응해 보는 날로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적응을 잘하기로 소문난 나인데 강의보다는 강사님과 소통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종이 한 장 자르고 질문하고, 종이 두 장 자르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힐링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갈 즈음,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며 여기 저기 울며 퍼지는 감탄의 소리...

“정말 멋져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요? 알려 주세요!”

저마다의 작품에 감탄하면서 사진 찍기 바쁜 손놀림에 멀찌감치 뒤에서 서성거리며 혼잣말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작품을 똑딱 만들 수 있을까?’

‘손재주 없는 나도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 스트레스받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나의 길을까 볼까?’

정말이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 아파 왔지만 이런 기회를 얻어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첫 작품(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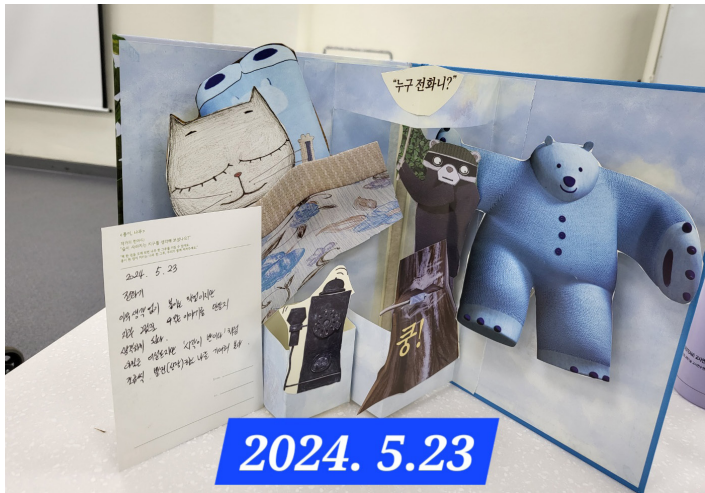
이 연수를 모두 이수하고 난 후 얼마나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감과 웬지 모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 왔어요.

너무도 잘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끝까지 연수를 듣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사실 앞섰지만 ‘연수 탐험가’ 답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탐험을 무사히 마치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시작이 반인데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자체로

대단한 용기를 지닌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멋지다고 박수도 보내 주지만, 교사인 나에게는 스스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아직은 서투르고 멋져 보이지는 않지만 도전하는 모습에 작은 박수를 자신에게 보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작품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고민하며 만든(생각하지 말라는 강사님의 말과는 반대로 정말 생각하게 만드네요) 작품에 계속 눈길이 가네요.



전화기(누구 전화나?)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 작품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사는 뭐든지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 팝업을 활용하여 팝업의 효과 및 이야기를 만든 방책, 간단한 사각 접기를 활용하여 담고 싶은 이야기, 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사각 주머니 책, 나에게 소중한 한 장의 그림, 글을 표현하는 메시지 팝업책, 내용의 재구성 능력과 팝업의 효과 및 이야기를 표현한 아코디언 팝업 책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만들어 보았어요.



나도 할 수 있대!

특히 팝업의 화려함을 표현한 180도 팝업북을 반 아이들에게 보여 주었어요.

“선생님, 책이 멋져요!”

“이야기가 이상해요!”

“우리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2학기 수업 활동으로 팝업북의 세계에 아이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아마 아이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창의적인 팝업북을 만들것 같아 2학기 수업이 기대되었어요.

선생님들이 만든 팝업북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수업도 인상 깊었어요. 다들 같은 그림책으로 다른 팝업북을 만드는 능력에 감탄이 절로 났어요.

팝업북 전시회는 처음이지?

3개월간의 연수 끝에(모든 연수를 다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결과물을 학교에 전시한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업사이클링 팝업북에 관심이 있지만 직접 연수를 해 보니 재능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웬지 모를 좌절감에 휩싸이기까지.

하지만 관심이 있는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아이들과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자부심이 생겨 바로 도서관으로 내려가 사서님과 전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환경과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미흡하지만, 주변에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연수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 많은 홍보를 하지 못했지만, 기꺼이 도서관에서 구경하고 관심 가져준 아이들과 선생님께 기쁜 감사를 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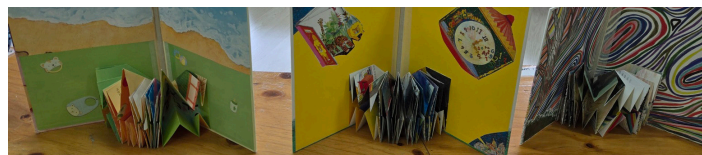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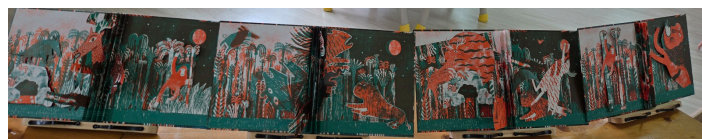


어서 와, 팝업북 전시회는 처음이지?

고 싶어요. 특히 1-1반 아이들은 선생님 작품을 찾겠다고 분주히 작품을 보는데, 기특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모든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씩 설명은 해 주지 못했지만 환한 미소로 작품을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전시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팀장님 덕분에 한 발짝 성장하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나도 환경 지킴이

3개월간의 연수를 마무리하고 2학기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던 중 통합(약속) 단원을 재구성하면 좋겠다 싶어 바로 강사님과 일정을 잡았어요. 다행히 그림책 관련 준비는 강사님이 다 해 오신다고 하여 한시름 덜었어요.

20차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환경 단위이라 준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역시나 한아름의 그림책과 준비물을 가져오신 강사님! 아이들에게 최고의 수업을 선사해 줄 기회가 되어 너무 흥분되고,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되었어요. 아이들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켜보라는 당부로 수업은 시작되었어요.

준비해 온 그림책 중 내가 원하는 그림책을 고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도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표지 그림만 보고 원픽을



나의 원픽은?

선택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 5장만 골라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고르세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 말은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더러는 친구들 그림책 그림이 너무 좋다고 그림책을 바꾸고 싶다는 아이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자신만의 그림책을 완성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대견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만든 자기 작품을 보고 뿌듯해하는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 속 세상처럼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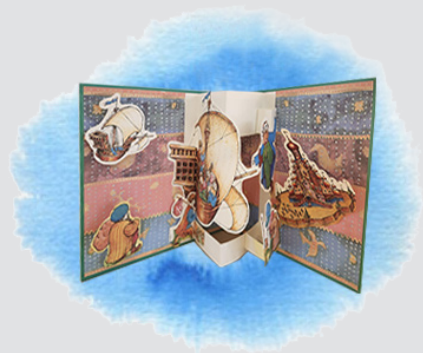


9

책에 숨결을

/ 고희경(부광중학교)

“버려진 책에 숨결을 넣어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이
무척 즐겁고 보람되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숨 고르는 시간이었고,
빡빡한 일상에 신선한 숨결을
불어 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책에 새 생명을

비 오는 날 아침 출근해서 도서관 문을 열면 꽤 많은 책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면 ‘낡은 책 때문이야. 다음에 장서 점검을 할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지!’ 하며 책장 구석구석 떨고 있는 낡은 책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장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낡은 책이라도 막상 버리자니 아쉬움이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손을 거친 탓에 책장이 너털너털해진 책도 있지만, 어떤 책은 버리려고 책을 빼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표지는 뽀뽀한데 내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책등이 허영게 빛바랜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면 꽃 한번 피워 보지 못한 채로 바삭 말라 버린 식물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농작물을 재배하듯 사서는 책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사서의 손길에 따라 책은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며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져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림책 읽기를 멈춘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에는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곤 했는데,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근무하는 곳도 중학교 도서관이다 보니 좀처럼 그림책을 접할 기회

가 없더군요. 그러다 지난 5월, 주안도서관에서 마련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연수에 참가하며 그림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8차시나 되는 긴 연수에 선뜻 참가하게 된 이유는 낡은 책을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탄생시킨다니 폐기 도서를 보며 느낀 아쉬움과 환경 파괴범이 된 듯한 죄책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팝업북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 무렵 자주 읽어 주었던 『입이 큰 개구리』라는 팝업북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읽던 팝업북 : 『입이 큰 개구리』

이 떠올랐습니다. 개구리가 새로운 동물들을 만나며 무얼 먹는지 물어보다, “입이 큰 개구리를 잡아 먹는다”는 악어를 만나자 깜짝 놀라 입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입이 큰 개구리는 없어요” 하며 도망을 친다는 내용인데요. 그림책 가득 호수가 펼쳐지며 개구리가 연못 속으로 도망가는 그림은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던 장면이지요.

팝업북은 2차원의 그림으로 존재하는 책 속 주인공을 3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읽는 이의 손길이 닿을 때 주인공을 직접 만나게 되는 듯한 즐거움을 주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행사를 운영하며 종이를 활용하여 꾸미는 작업을 다양하게 해 보았기에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그림책을 펼치고 보니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우선 그림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요약하듯 만들면 될까 싶어 책을 읽기 시작하니, 강사님(안선화 작가님)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용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롭게 마음 가는 그림을 선택하여 오려 붙이면 책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책을 펼치며 그림을 선택하려면 뒷장의 그림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팝업북의 특성상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도 없기에 선택되는 그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 그림들을 보며 들었던 느낌을 기억하고 내가 펼칠 새로운 이야기에 필요한 그림을 선택합니다. 다른 페이지를 구성했던 여러 그림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빼기, 그리고 상상하기! 내 안 어느 구석엔가 숨죽이고 있을 ‘상상력’과 ‘창의력’ 님들께 간절히 SOS를 보내며 외칩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처음 만든 책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의 모험을 담은 책입니다. 주인공이 책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다니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 주길 바라보며 책을 펼치면 하늘을 나는 배가 튀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는 배

나오게 붙여 봅니다.

세상 제일가는 바보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상을 받게 될까요? 늘 그렇듯 예쁜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결말이 아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워 스스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말을 맺고 싶네요.

방책 만들기 방법으로 만든 할아버지의 곰인형입니다. 곰은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사람처럼 일어서거나 앞발을 손처럼 쓸 수 있어서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동물이지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곰인형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할아버지의 곰인형

곰인형을 태울 유모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커다란 유모차를 만들어 주는데요, 할아버지의 유모차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를 조르는 손녀의 모습을 크게 담고, 스프링 기법으로 창문과 나무 등을 입체적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가위질 소리와 무아지경

6월이 되며 큰일들이 겹겹이 밀려 옵니다. 봄부터 준비했던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를 마무리 짓고, 가구와 비품을 고르고, 서가 이전을 위해 장서 점검을 하고, 불용 도서를 폐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공사 준비를 위해 매일 같이 야근, 또 야근입니다.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최소한 10여 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실수 없이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서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학생들이 매일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 쾌적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서관 콘셉트와 공간 설계, 가구 디자인, 조명 등 세세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려니 스트레스가 최고 치에 이릅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 아직 4차시나 남은 팝업북 연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공사 업체와 미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려 결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아코디언 책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제는 정말 출발해야 하는데, 가구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나니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빠져야 하나 고민을 잠시 하다가 이리다 중간에 배움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주안도서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강의실 내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한창입니다. 늦게 참여한 저를 배려하여, 강사님은 맨 앞자리를 내어 주십니다. 늦게라도 참여하여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늦은 학생을 전담하여 일대일 수업을 하듯, 아코디언 책 만드는 법을 세세히 알려 주십니다.

낯은 그림책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그림을 고릅니다. 아코디언 책의 매력은 아코디언의 주름 펴고 접으며 다양한 멜로디가 나오듯, 접힌 그림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펼쳐져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림을 보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를 오리고, 풀칠하고, 붙이며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 속에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단순 작업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질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분주했던 일과에서 잠시 벗어나, 그림책을 오리고 붙이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버려진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쩌면 제가 버려진 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이 제 마음을 치유해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 고치는 강아지, 화이트 박사님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 같은 책, 다른 이야기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그림책이었습니다. 강렬한 색채 때문인지, 동물들 하나하나가 울부짖으며 밀림에서 뛰쳐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글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상상해 봅니다.

잔뜩 성이 난 호랑이와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둘은 가장 중앙에 대치되게 붙입니다. 높이 자란 풀과 야자 나무를 오려서 밀림을 만들고, 그 뒤로 겁에 질린 원숭이, 얼룩말과 새를 숨겨 봅니다. 한밤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시뻘컘게 물든 달을 밤하늘에 둥둥 띄워 붙여 마무리합니다.

같은 책이지만 참 다른 느낌입니다. 선택된 동물도 다르고, 위치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호랑이의 탐욕과 힘없는 동물들의 희생? 그래도 밤이 지나면 태양이 뜰 것이라는 희망?



여러 작품을 모아 붙이니 한밤의 밀림 풍경이 담긴 병풍 같습니다.

『피노키오』

- 다른 듯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

7차시 연수는 『피노키오』 책으로 각자의 팝업북을 제작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모두 같은 책이 아닙니다. 출판사가 제각각, 그림도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배웠던 팝업북 제작 방법 중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10권의 피노키오가 어

떤 책으로 새로 태어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저는 하루 결석을 해서 배우지 못했던 사각접기-사각 주머니 기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일대일로 속성 특강을 받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히 채우고 싶었던 내용은 피노키오가 페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고래 배속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말썽만 부리던 피노키오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할아버지의 고마움



을 깨닫게 되는 결말처럼,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꾸러기들에게도 저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때문입니다.

만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을 힐끔거리게 되네요. 모두 마무리 짓고 한곳에 모아보니 멋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들의 피노키오!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들의 피노키오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회

2학기가 시작되자, 여름내 흘렸던 땀방울과 영혼을 갈아 넣은 새 도서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감성에 맞게 카페같이 오밀조밀 예쁘고, 쾌적해진 도서관에는 매일매일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아이들의 마음이 한참 팍팍해질 무렵,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제집을 들고 점심시간에 짬 내어 공부하러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이게 뭐예요?” 하며 놀랍니다.

대개의 전시장에는 ‘만지지 말고 조심히 감상하세요.’라는 문구가 붙지만, 팝업북은 접었다가 펼쳐 보아야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기에 용기를 내어 전시를





팝업북을 펼쳐보며 감상하는 학생들



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팝업북을 펼쳐 보며 감상하세요.’

아이들의 즐거운 감상을 위해 딱풀 뚜껑을 열어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팝업북 수선 24시간 대기 중!’

나도 한마디...

➡ (교사) 유*영 : 기존 그림책을 활용하여 만든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그림을 오려 스토리를 만들어 이어 붙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팝업북으로 완성될 수 있다니 놀라웠다.

➡ (학생) 정*린 : 여러 가지 입체 그림책들이 전시된 것을 보고 동화 속으로 온 기분이고, 책이 예뻐 보였습니다.

➡ (학생) 이*연 :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도서관이 더 호화로웠다. 눈이 즐거웠고, 다양한 분들의 작품을 보곤 참 신기했다. 만져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학생) 양*나 : 도서관에 전시된 팝업북을 보니 그림이 튀어나오는 듯해서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팝업북 전시회

10

그림에 집중

/ 정은혜(인천석암초등학교)

“그림책을 볼 때 그림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집중했었는데,
그림에 집중하며 그림 자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가위질

2024학년도에는 학교 도서관의 문을 여닫는 일에 만 급급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3월쯤이었을까? 학교 도서관 및 독서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신청 공문이 내려왔다. 연수 장소는 일터에서 마음만 먹으면 걸어가갈 수 있는 거리인 주안도서관이었다.

연수 주제인 ‘업사이클링 팝업북’은 인터넷에서 몇 장의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그다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이름 그대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



처음 만들어 본 무대책

를 창출하는 북아트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직무 연수에 실습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 신청을 망설였다. 꾸미기에는 영 소질이 없는데, 실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며칠 동안 이어졌고, 결국 고민 끝에 연수를 신청했다.

‘배움에 초점을 두고, 완성에 연연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연수 당일,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여러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로 공간이 가득 차 있었다. 안선화 작가님의 팝업북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금세 실습할 시간이 다가왔다. 예상보다 단순했다.

작가님은 우리에게 그림책을 한 권씩 나눠 주셨다. 이미 기본 작업이 되어 있는 책이었다. 작가님은 그림책 내지를 펴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다섯 개 오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선뜻 가위를 들이밀 수 없었다. 참으로 낯선 시간이었다. 책장을 뜯거나 찢으면 안 된다고 말해 왔던 내가 직접 책의 페이지를 오리려니 손이 어색했다.

그날 우리는 기본 팝업북 중 하나인 ‘무대 팝업북’을 꾸몄다.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5월 무렵부터 시작되는 8회의 활용 연수를 추가로 신청했다. 방책, 무대책, 사각 주머니 책, 아코디언책, 페이지



두 번째로 만들어 본 무대책

지 스토리 팝업북 등 다양한 팝업북 만들기 방식을 배워 나갔다. 특히 종이 스프링 접기 방법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작가님의 말씀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최대한 생각을 비우고, 예쁜 그림과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림책에서 글자 대신 그림에 집중하는 색다른 경험을 거듭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다.

가위질도 점점 속도가 붙었다. 새로운 쓰임을 만

드는 작업이라는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느새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폐기 처리된 그림책이 생기면, 배운 대로 다시 가위질을 시도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사각 주머니 책

딱 닫힌 해피엔딩, 피노키오

서로 다른 피노키오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드는 시간이 주어졌다. 피노키오? 제목은 익숙했지만, 기억나는 건 별로 없었다. 한 목수가 나무를 깎아 만든 소년,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것.

생각나는 내용은 그게 전부였다. 테이블에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버전의 피노키오 그림책이 가득 놓여 있었다.

피노키오의 생김새는 제각각이었고, 책 제목들도 조금씩 달랐다. 그 순간, 어렴풋이 어린 시절 내 방의 모습이 떠올랐다. 책장에는 많은 세계 명작 동화들이 꽂혀 있었다. 어렸을 때 내가 읽었던 피노키오는 어떤 표지에, 어떤 모양의 피노키오였을까? 궁금했지만, 동화 전집이라는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여러 피노키오 그림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심장이 유독 두근거리며 조금은 빨라진 듯했다. 같은 줄거리일 테지만, 어떤 장면들이 나를 반겨 줄지 알 수 없었다. 한두 장을 넘겨보고 내려놓고, 또 다른 피노키오를 찾아 들고 넘겨 본다. 몇 번이나 책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피노키오를 골라 자리로 돌아왔다.

어떤 팝업북으로 꾸밀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미



방책으로 꾸민 피노키오 그림책

션이 주어졌다. 책장을 넘기며 그림들을 살폈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일부러 글은 읽지 않으려 애썼다. 팝업북을 꾸밀 때 내용을 미리 알면 오히려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책 팝업북으로 만들기로 정했다. 이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자르고,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붙이면 좋을지 고민했다. 처음보다 가위질 속도가 제법 붙은 모양이다.



집 안과 집 밖으로 대비감이 있는 페이지 팝업북

페이지 책은 각자가 마음에 드는 배경 그림으로 구성해서인지, 단순히 꾸며도 비어 보이지 않았다. 여러 페이지 중에서 어떤 장면의 그림을 선택해 붙여놔도 잘 어울리는 게 참 신기했다.

피노키오 팝업북 만들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동화를 끝까지 다 읽어 보았다. 내용을 알고 나니,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 장면들을 선택해서 팝업북을 만드셨는지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속아 금화를 뺏긴 뒤에도 여러 유혹에 휘청했지만, 상어 뱃속에 갇혀



땅과 바다를 절묘하게 연결한 페이지 팝업북

있던 제페토 아빠를 구하는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피노키오의 꼭 닫힌 해피엔딩을 오래오래 기억해야겠다.

정답 없는 팝업북

그림책 팝업북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했던 고민은 어떤 그림 장면을 선택해 활용할지였다. 처음보다 선택에 고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좋은 그림이 많아도 다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다. 그러나 아코디언 팝업북을 만드는 시간에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책장을 모두 낱장으로 분리한 뒤, 한 장씩 앞뒤로 살폈다. 아코디언이 될 다섯 개의 페이지를 골랐고, 장면의 순서도 정했다. 그러나 아코디언 모양으로 접



펴고 접는 재미가 있는 아코디언 팝업북

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크기에 맞춰야 했다. 페이지의 위나 아래를 잘라내야 했다. 페이지를 고를 때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하며 다시 페이지를 고르고, 장면의 순서도 다시 정했다. 처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을 다시 해서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여 주고 싶은 그림을 안쪽으로 접어 삼각 주머니를 만들었다. 세모 밑면의 꼭짓점을 안쪽으로 접은 후, 순서대로 풀칠을 하면 된다.

풀칠하기 전에 안쪽 그림의 위아래를 여러 번 확인했다. 작가님이 알려 주신 순서대로 종이를 접고 풀칠을 하니, 아코디언 팝업북이 점차 형태를 갖추었다. 장면 하나하나를 펼치고 접을 때마다 나도 신기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팝업북을 바라볼까?

아코디언 팝업북은 그 자체로 볼거리가 풍성해 면지를 꾸미지 않아도 비어 보이지 않았다. 샛노란 면지가 마치 밤하늘의 환한 달빛 같았다.

아코디언에서 밀려난 애매한 크기의 페이지들을 다시 한 번 살폈다. 각각의 페이지를 이루는 그림들은 여전히 알록달록하고 예뻐다.

밤하늘 그림을 작게 잘라 대칭되게 붙이니, 노란



그림 동화책에서 달려 나오는 동물들

면지가 더 달빛처럼 보였다. 책과 시계 그림을 더하니, 팝업북은 환상적인 동화의 한 장면처럼 완성되었다.

어렸을 때 나는 미술 시간 활동을 유독 어려워했다. 왜 그랬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선생님의 예시 작품이나 손재주 좋은 친구들의 작품을 스스로 '정답'이라고 여겼다. 그러고는 나는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내 한계를 먼저 규정해 버렸다.

지금은 미술에 정답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표현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도 그림책



시간 여행을 상상하게 하는 시계

팝업북 만들기 연수를 통해 내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었다.

방식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팝업북 만들기를 더 잘하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알려 주고 싶다.

업사이클링을 느끼는 시간

여름방학이 끝났다. 공사 기간 동안 쌓인 먼지를 열심히 닦아 낸 후 도서관을 다시 개방했다. 오랜 방학 휴관을 기다려 준 아이들을 위해, 첫 행사로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순회 전시를 준비했다.

도서관의 가장 큰 책상과 창가 테이블에 전달받은 팝업북 작품들을 진열했다. 작품을 세팅하는 동안, 등 뒤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사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펼쳐 봐도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질문자는 평소 도서관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는 어린이 이용자들이었다. 매일 도서관에 오는데 못 보던 팝업북 작품이 있으니, 꽤 신기했던 모양이다.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을 아이들이 잘못 만져서 망가지면 어떻게 고칠지 걱정했었는데, 아이들은 전시회 관람 매너를 지켜주었다. 팝업북을 만지고 싶을 때는 먼저 물어온다. 조심히 살펴보고라고 말해 주면 팝업북을 만지는 아이들의 손길은 작은 생명체를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진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회 (2024년 9월 넷째주)



네 면을 활용해 꾸밀 수 있는 사각주머니 책



방책(왼쪽, 중앙)과 페이지 스토리 팝업북(오른쪽)



아코디언 팝업북을 펼치면 그림책 속 장면이 펼쳐진다.

“책들이 너무 예쁘고 다양하다.”

“망가진 책을 이렇게 만든 게 대단하다.”

“이 팝업 그림책들, 도서관에서 사 주면 좋겠다.”

“입체적인 부분이 신기하다.”

“작품들이 너무 예쁘고 한눈에 보기 좋다.”

“입체적인 그림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다.”

아이들이 남겨 준 팝업북 전시 관람 후기를 천천히 읽어 보며 전시를 마무리했다. 버려질 그림책도 다시 보자. 꽤 근사한 팝업북이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된다면 업사이클링을 느끼는 시간을 또 마련해야겠다.

버려진 그림책의 새로운 가치, 창의와 자원순환

그림책은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그림만 볼 때와 글자만 볼 때, 그리고 그때그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림책을 좋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하는 그림책이라도 이사를 하거나 책이 낡으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낡고 찢어진 그림책, 버려진 그림책이 업사이클링 팝업북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새로운 이야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마치 책 제목처럼 두 번째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진행된 업사이클링 팝업북 연수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교육 현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기 도서를 활용해 팝업북을 제작하는 과정은 자원 순환과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사랑하는 열 명의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 만든 팝업북은 각자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폐기될 뻔한 그림책들이 팝업북

으로 재탄생하면서 단순한 책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독서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안도서관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독서 흥미를 키우는 활발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애써 주신 안선화 작가님과 우리 사서님들, 그리고 배움을 전시와 수업 등으로 교육 현장에 활용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읽건쓰 활동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끝자락에
주안도서관 곽미혜

